

## 호주, 2008년도 세계 및 호주경제 전망

권 오 복\*

세계 경제는 최근 들어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으로 인해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위험 요소를 더해준다. 2008년 세계 경제는 4.6%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7년과 2006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8%, 5.4%였다. 2007~08년 호주의 경제는 전년의 3.2%보다 높은 4.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호주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발표한 2008년도 세계 및 호주 경제전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1. 세계 경제 전망

#### 금융시장불안이 경제 성장에는 영향 안 미쳐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증가했지만 세계 경제는 강세를 띠고 있다. 이것은 주요 신흥시장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 경제의 경우 3분기에는 전년대비 11.9% 성장했다. 2분기에는 11.9% 성장한 바 있다. 인도경제도 연평균 9% 가량의 고도성장 중에 있다. 그밖에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다른 신흥시장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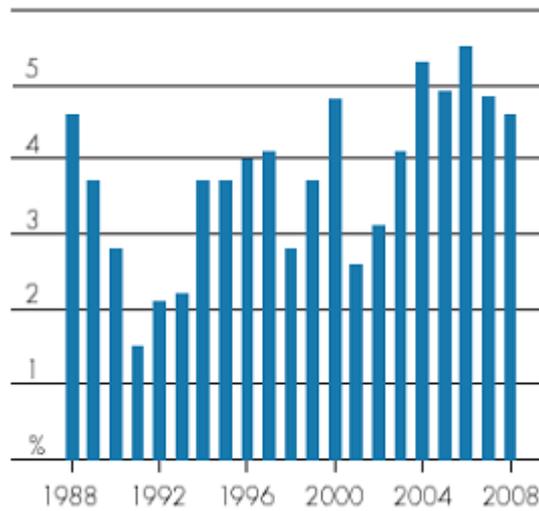
신흥시장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OECD 국가 경제는 완만한 성장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세를 보인다. 미국에서는 주택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과 일본 경제는 금년 초 빠른 성장에 이어 연중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1 세계 경제 성장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OECD 국가의 물가는 안정을 보여왔다. 다만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내수의 강세와 식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품가격이 상승 기조를 띠는 이유는 주요국에서 옥수수과 유량종자와 식량작물을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하고, 주요 생산국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빚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생산이 낮은 상태에서 수요 강세로 인해 다시 상승 기조를 돌아섰다. 비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도 기대에 못 미치고 주요 산유국의 정치 불안도 국제유가를 높게 유지시키는 한 요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많은 신흥시장경제 금융당국은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7년 이래 이자율을 다섯

차례나 인상하였다. 인도의 통화당국도 지난 2007년 6월 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8개월간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이자율 인상이었다.

표 1 주요국의 자국화폐로 표시한 원유가격 인상율

	화폐	2006 평균	2007. 1~10	'06부터 변화율	'07.11월말	'06부터 변화율
OECD						
미국	US\$	66.1	68.1	3.1	98.2	48.6
일본	엔	7,663	8,087	5.5	10,630	38.7
서유럽	€	52.4	50.2	-4.1	65.9	25.8
영국	£	35.8	34.1	-4.6	47.5	32.7
호주	A\$	87.9	82.3	-6.4	112.7	28.3
아시아						
중국	위엔	526.7	521.0	-1.1	728.0	38.2
인도	루피	2993	2,842.1	-5.0	3,867.3	29.2
말레이시아	링기트	243.6	236.3	-3.0	332.8	36.6
인도네시아	루피아	608,266	621,105	2.1	923,698	51.9

## 2008년 세계 경제는 소폭 성장할 듯

일부 신흥시장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지표를 전망하면서 2008년 세계 경제는 4.6%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7년과 200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8%, 5.4% 이다.

## 경제전망에 상당한 하방조정위험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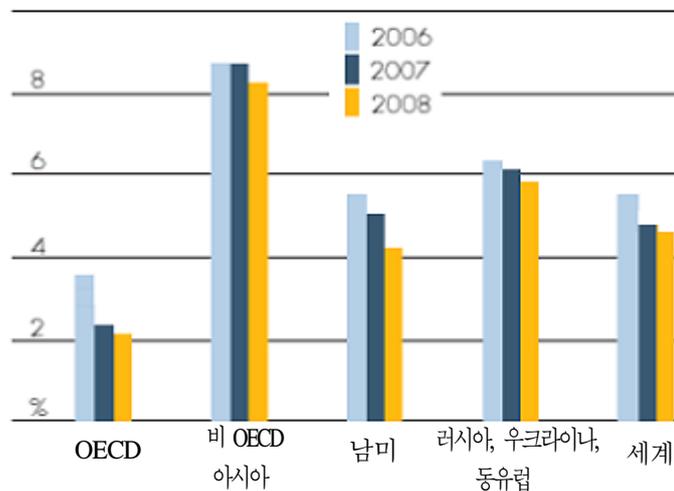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떨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경제에 하방조정위험(downside risks)이 존재한다. 현재 세계 경제 전망에 하방조정위험 요소 중의 하나는 최근 국제 신용시장조건의 취약성이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

대출(subprime mortgage) 문제로 인해 자본대출국이 자금대출을 꺼려 세계 신용시장에서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 세계 신용시장 불안 증가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실패가 늘어남에 따라 그러한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선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오른다. 최근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은행의 부실 대출에 따른 손실의 크기와 거기에 개입된 은행들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더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시장이자율은 오르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은행들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자금 대출비용의 상승, 주식가치 하락,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자본유입 감소 등의 형태로 신흥시장경제에게도 확산된다.

그림 2 주요지역별 경제전망



시장교란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 Bank)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과 같은 세계의 주요은행들은 자본시장에 현금 유입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특히 세계 주요 경제의 소비지출과 투자에 대한 영향

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 2008년 미국 경제 둔화될 듯

자본시장의 위축과 금융시장에서 불안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하향조정과정에 있다. 2008년 미국 경제는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치는 ABARE의 3/4분기 전망치 2.6%보다 0.6%p 낮은 수치이다. 2007년 미국 경제는 약 1.9%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2.9% 성장하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어려움은 주택건설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하여 고에너지가격, 고용기회 증가의 정체,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비지출 역시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세계 증시 현황

	주식시장 지수		
	52주간 최고치 1)	2007년 11월말	변동률
<b>OECD</b>			
미국	14,165	12,937	-8.7
일본	18,300	14,995	-18.1
유럽	4,558	4,235	-7.1
호주	6,852	6,405	-6.5
<b>동아시아</b>			
중국	6,396	5,415	-15.3
한국	2,065	1,829	-11.4
대만	9,860	8,537	-13.4
<b>동남아시아</b>			
인도네시아	2,733	2,598	-4.9
말레이시아	1,414	1,362	-3.7
필리핀	3,897	3,534	-9.3
싱가폴	3,906	3,367	-13.8
태국	925	820	-11.3
인도	19,978	18,97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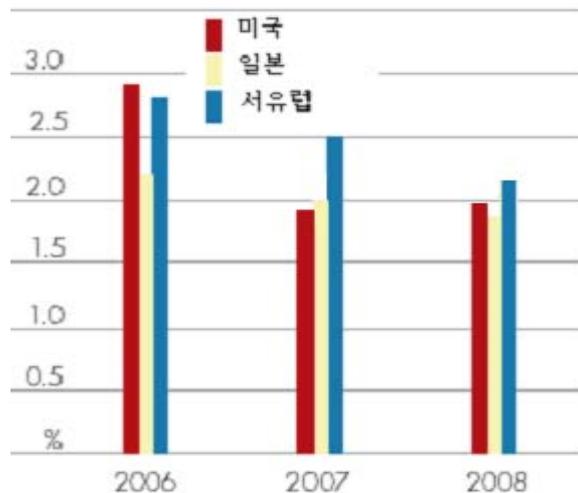
주: 2006년 11월말부터 2007년 11월까지 최고 지수

2년에 걸쳐 진행되는 미국 주택부분 조정은 미국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건설경기의 급격한 냉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1%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도 미국의 주택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가계 활동의 위축에서 오는 미국 국내 수요의 하방조정위험이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신용시장의 위축으로 가계 부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기대보다 더 하락하고, 그에 따라 채 대출이 어렵게 되고 가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면 민간 소비는 물론 주택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 이외에도 미국 경제가 장기에 걸쳐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약화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은행이 화폐정책을 신속하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둔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림 3 미국, 일본, 서유럽의 경제 성장



## 서유럽에 대한 영향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과 서부유럽 경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유럽의 여러 은행이 미국 주택 부문 대출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서유럽도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금융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수요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다.

서유럽 주택시장에서 하방위험의 한 요인은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지에서 주택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주택가격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지역의 주택경기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비우량주택대출문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2008년도 서유럽 경제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과 2006년 유럽경제 성장률은 각각 2.5%, 2.8% 이었다.

## 일본에 대한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듯

일본의 경우 미국 비우량주택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이 둔화되어 잠재 성장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외부 여건이 소비자와 기업가의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에 의해 일본의 경제 활동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금융시장 불안정 효과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기준 2007년 3분기 일본의 경제는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2분기 1.6% 성장에 뒤이은 것이다.

최근 공개된 경제지표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

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단기적으로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수출에 대한 세계 수요와 일본 내 소비 지출의 불확실성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다소 소강 국면을 보일 것이다. 2008년 일본의 경제는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과 2006년 일본 경제는 각각 2.0%, 2.2% 성장하였다.

### 아시아 신흥경제권의 경제 전망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아시아의 비 OECD 국가의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강세를 띠며 따라 강한 성장세에 있다.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가 강세를 띠는 가운데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태국 국내 수요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은 견고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완화될 것 같지 않다. 중국 경제의 경우 2007년 11.5%의 경제 성장에 이어 2008년에도 1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경제도 2007년 9.5% 성장에 이어 2008년에도 8.5% 성장이 예측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미국 경제성장이 주춤함에 따라 수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태국 경제가 소비자 및 기업가의 신뢰 회복으로 다시 살아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단기적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2007년 5.8% 경제 성장에 이어 2008년에는 5.5%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시점에서 아시아 지역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낙관적인 측면은 중국경제의 성과가 항상 기대보다 나아져 중국 경제의 둔화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인도 경제도 기업이윤이 투자지출을 계속해서 유도

할 경우 기대보다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표 3 세계 주요 지역, 국가별 거시경제 가정

	단위	2005	2006	2007	2008
<b>경제성장률</b>					
OECD	%	2.6	3.2	2.4	2.3
미국	%	3.1	2.9	1.9	2.0
일본	%	1.9	2.2	2.0	1.8
서유럽	%	1.5	2.8	2.5	2.1
독일	%	0.8	2.9	2.4	2.0
프랑스	%	1.7	2.0	1.9	2.0
영국	%	1.8	2.8	3.1	2.3
이탈리아	%	0.1	1.9	1.7	1.3
한국	%	4.2	5.0	4.8	4.6
뉴질랜드	%	2.7	1.6	2.8	2.3
개발도상국	%	7.1	7.7	7.6	7.2
중국	%	10.4	11.1	11.5	10.5
인도	%	9.0	9.7	9.0	8.5
대만	%	4.1	4.7	4.1	4.0
남미	%	4.6	5.5	5.0	4.3
러시아	%	6.4	6.7	7.0	6.5
세계	%	4.8	5.4	4.8	4.6
<b>인플레이션</b>					
미국	%	3.4	3.2	2.7	2.3
<b>이자율</b>					
미국	%	7.3	8.0	8.0	7.5
<b>미 달러 환율</b>					
대 엔화	Yen/ US\$	110	116	116	113
대 유로화	Euro/ US\$	0.80	0.79	0.73	0.71
<b>호주</b>					
경제성장률	%	2.8	3.0	3.2	4.25
물가상승률	%	2.4	3.2	2.9	2.8
이자율	%	8.9	9.1	9.8	10.5
<b>호주 달러 환율</b>					
대 미 달러		0.75	0.75	0.78	0.88
대 중국위안		80	85	93	101

자료: ABARE, IMF, OECD, ABS, RBA.

다소 어두운 측면으로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와 OECD 국가와 강력한 무역 연관 하에서 OECD 국가 경제의 침체는 아시아 제품에 대한 수출수요를 저감시켜 지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다.

###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또 다른 하방위험요인**

중국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2007년 9월 전년대비 6.2% 상승한데 이어 10월에도 전년대비 6.5% 상승해서 최근 들어 물가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10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은 1.5%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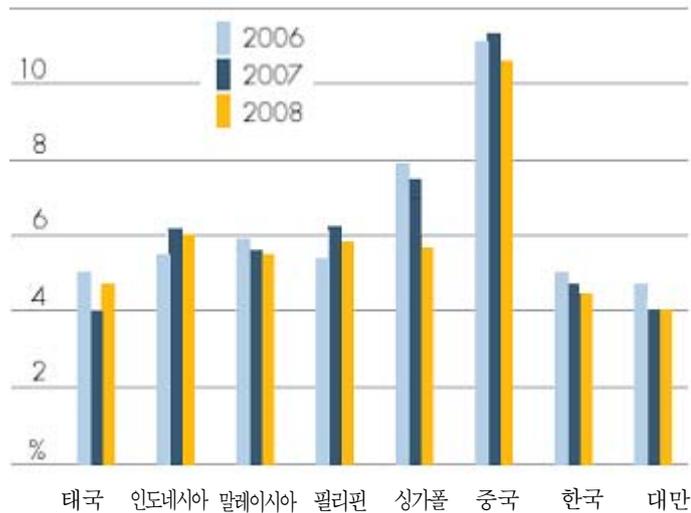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2007년 10월 식료품가격은 전년대비 17.6% 상승해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중국정부는 지난 11월 가솔린과 디젤 가격을 올려 물가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상승 압력을 막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기준대출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올려왔다. 중국 경제가 계속 강세를 띠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그와 같은 긴축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자율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 **2. 호주 경제 전망**

호주 경제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3분기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2007년 10월 현재 실업률도 4.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4 아시아 경제 성장



향후에도 호주 자원에 대한 수입수요가 계속 늘어나 호주 경제가 활력을 유지할 것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여 소비지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 경제는 4.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에는 3.2% 성장하였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과 10월 사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온도에 강우량이 적어 동계작물의 작황이 이전 예측 수준보다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불리한 기후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북부, 뉴사우스웨일즈 등이다. 축산 역시 좋지 않은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목초 생육상황이 좋지 않고 구입 사료 값이 비싸 양축농가들은 가축두수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2007~08년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할 전망이다. 2006~07년에는 21% 감소하였다. 2007~08년 농산물 생산은 13% 증가하겠지만 축산물 생산은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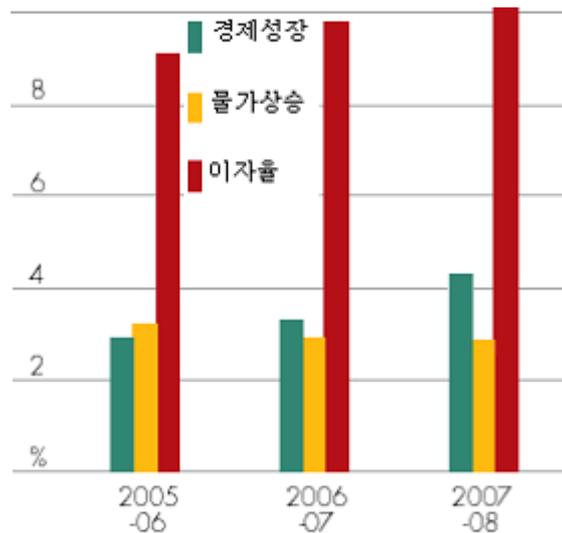
## 물가상승

2007년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분기 1.2% 인상에 이어 3분기에는 0.7% 증가하였다.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과일(9.6%), 채소(7.9%), 물(5.5%), 각종요금(4.5%), 전기(4.35) 등이다. 다만 보육비(33.4%), 약품(4.5%), 자동차연료(3.7%) 등은 물가가 내려 이와 같은 물가 상승을 다소 상쇄하였다.

최근 발표된 다른 물가지수를 보아도 호주의 물가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전년대비 최종소비재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07년 2분기 2.3%에 이어 3분기에는 2.4%였다.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국내 부문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반면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 부문은 5.5% 하락하였다.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2006~07년 2.9%에 이어 2007~08년에는 2.8%로 전망된다.

그림 5 호주의 경제 지표



**환율**

지난 수개월간 호주 달러는 대미 달러에 대해 큰 폭으로 평가 절상되었다. 지난 8월 중순 1호주달러에 79센트(미화기준)하던 호주 달러 가치가 11월 초순에는 93센트에 달하다고 11월 하순에 87센트로 다소 평가절상 폭이 완화되었다.

2007~08년 초기 5개월간 호주달러의 대미 달러에 대한 환율은 87센트로 전망된다. 이것은 2006~07년 호주달러의 평균 환율인 78센트와 비교된다.

이처럼 호주달러가 강세를 띠게 된 근본 이유는 미국 달러가 해외 통화에 대해 약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환율이 8월 중순 0.74 유로이던 것이 11월 하순에는 0.67유로로 하락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이자율은 비우량주택대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이자율 격차가 벌어질수록 미국 달러화 가치는 낮아질 것이다.

그림 6 호주의 환율 추이



더욱 중요한 요인은 최근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문제로 미국 경제의 단기 성장 전망에 대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불안감이 존재한다. 미국 주식 시장이 해외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자본흐름의 종착지로서 미국 경제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달러화는 단기적으로 약세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경제 전망을 위해 2007~08년 호주 달러의 대미 달러 환율은 88센트로 가정하였다.

미국 달러에 대한 호주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호주 달러는 금융시장의 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호주의 환율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업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2007~08년 상품수출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듯**

호주 상품의 단위수출수익지수(Index of unit export returns)는 2006~07년에는 8% 이상이었지만 2007~08년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단위수출수익지수는 2006~07년 4%에서 2007~08년에는 7%p 상승한 11%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7~08년에는 밀, 옥수수, 쌀, 콩, 목화, 섬유 작물, 낙농제품의 국제가격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07~08년 에너지 수출의 단위수익은 3% 정도 증가하지만, 금속과 광물자원 수출의 단위수익은 7%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품수출은 다소 증가할 듯**

호주의 상품수출액은 2006~07년 1,394억 달러에서 2007~08년에는 이보다

1% 정도 증가한 1,405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품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에너지 수출 증가 전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농산물, 금속, 기타 광물자원 수출은 한발의 영향과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2006~07년 277억 달러에서 2007~08년에는 이보다 약 3.1% 하락한 268억 달러로 전망된다. 2007~08년에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밀, 목화, 설탕, 산양, 섬유 등이다. 그러나 보리, 캐놀라, 포도주, 양고기, 생우, 대부분의 낙농제품의 수출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임산물 및 수산물의 수출은 2006~07년보다 2.6% 정도 증가한 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Marina Kim and Jammie Penm, "Economic Overview," Australian Commodities, Vol. 14, No.4(December Quarter 2007) 발췌정리.